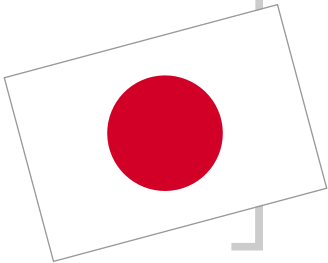




연·중·기·획
국가별 육계산업 현황

제6편_ 일본의 육계산업(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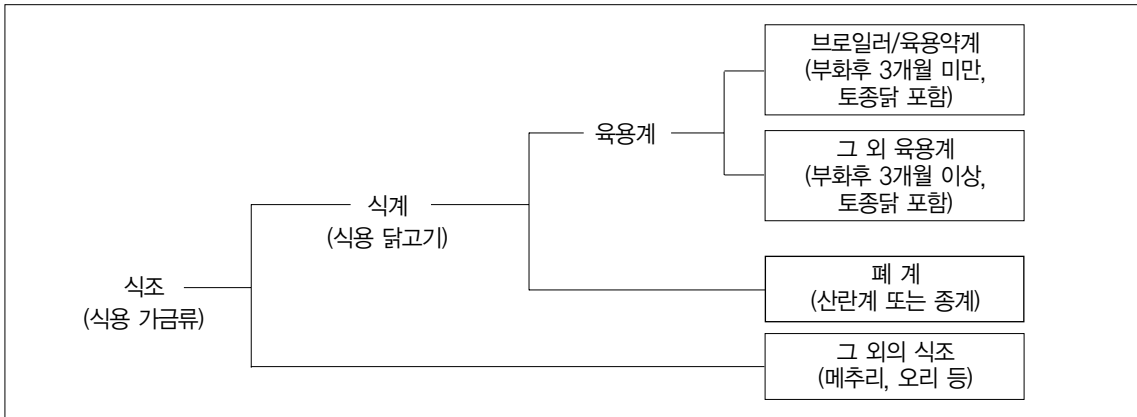


항 보 중 농업연구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 지난호에 이어...

4. 일본의 식조처리장(도계장)

일본에서 도계장의 개념은 식조처리장(食鳥處理場)이라 하며, 식조의 개념은 브로일러 외에도 폐계, 토종닭 및 메추리와 오리 등도 포함하는 식용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금류를 의미한다. 일본의 식조의 종류는 브로일러, 그 외 육용계, 폐계 및 그 외 식조로 구분하여 정의한다(그림 1).



〈그림 1〉 일본 식조의 분류

〈표 7〉 일본의 식조 처리량(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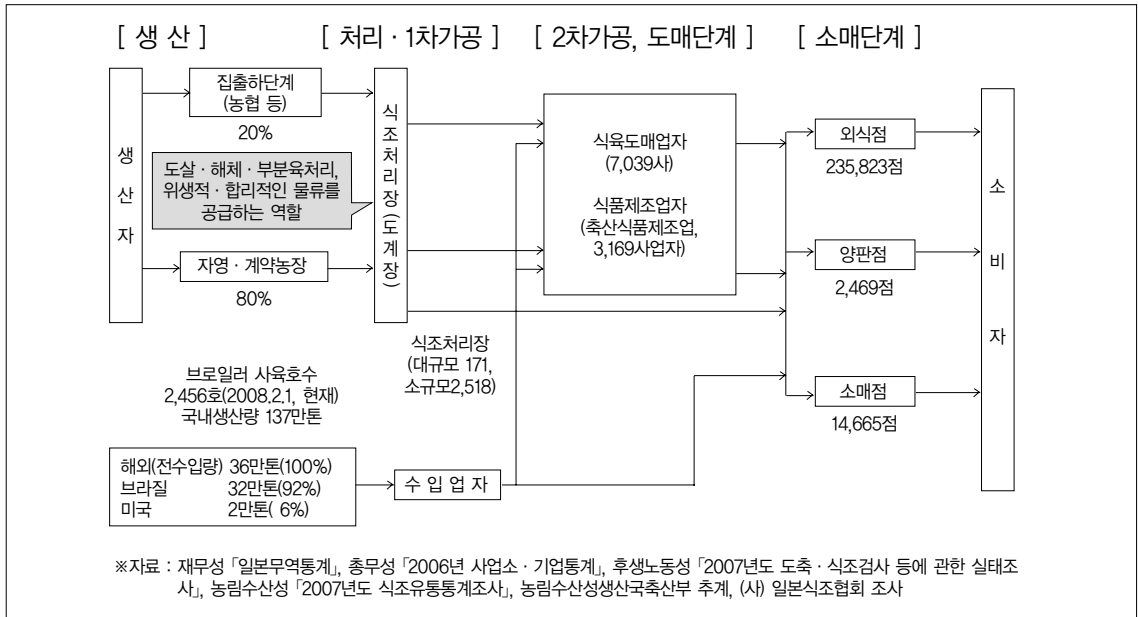
구분	처리량(생체)	
	수수(천수)	중량(톤)
브로일러	622,834	1,754,396
폐계	93,928	165,107
그 외 육용계	8,577	26,410
그 외 식조	2,727	5,662
계	728,066	1,951,575

〈표 8〉 일본 브로일러의 연간 출하호수·출하수수 및 호당 출하수수

구분	출하호수	출하수수(천수)	호당 출하수수(천수)
2007년	2,991	622,834	208.2
2006년	3,065	621,820	202.9
전년대비(%)	97.6	100.2	102.6

〈표 9〉 일본 식조처리장 수 및 1개 처리장당 처리중량

구분	식조처리장	식조의 종류별 처리장			
		브로일러	폐계	그 외 육용계	그 외 식조
처리장수					
2007년	627	177	306	183	89
2006년	633	185	313	174	94
전년대비	99.1	95.7	97.8	105.2	94.7
1개처리장당 처리중량(톤)					
2007년	3,113	9,912	540	144	64
2006년	3,061	9,461	494	154	59
전년대비	101.7	104.8	109.3	93.5	108.5



〈그림 2〉 일본 닭고기의 유통경로

일본의 2007년 식조처리량, 브로일러의 연간 출하호수·출하수수 및 호당 출하수수, 식조처리장 수 및 1개 처리장당 처리중량은 <표 7>, <표 8>, <표 9>와 같다.

라, 닭고기 처리·유통의 각 단계에서의 합리화와 위생적인 처리의 추진과 함께 수요자 요구에 대응한 자국의 닭고기 유통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5. 일본의 닭고기시장(유통부분)

6. 닭고기 생산이력제(Traceability)

일본의 닭고기 시장의 유통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일본의 닭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는 1964년 20%에서 1980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따라 1987년까지 매년 관세를 낮추어 뒷다리 10%, 그 외 14%를 유지하다 현재 닭고기 뒷다리 8.5%, 그 이외는 일괄적으로 11.9%를 과세하고 있다.

일본 식품산업의 최고의 키워드는 안심·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육계산업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인하 등을 배경으로 닭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국내산 닭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기 위해 농가 단계의 생산 코스트뿐만 아니

생산이력제란 생산, 가공, 유통·판매 등의 「경로」와 「이력」 정보를 보관하고,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일본식조협회에서는 「식품의 신뢰 획득」을 위해서 각 회원 기업의 회사개요, 가공공장, 생산농장을 열람할 수 있는 「닭고기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식별번호에 의해서 소비자 → 판

매점 → 가공공장 → 생산농장 순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7. 사료값 폭등에 따른 안정대책

사료값의 폭등으로 전 세계의 모든 축산농가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사료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 육계산업의 특성상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사료비는 육계농가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육계농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서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와 가격차 보존의 실시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는 ① 민간(생산자와 배합사료 메이커)의 적립에 의한 「통상보전」과 ② 비정상인 가격 상승 시에 통상보전을 보완하는 「이상보전」(국가와 배합사료 메이커가 적립)의 2단계 구조에 의해 대응한다.
- 최근에는 「통상보전」이 2006년 10~12월 이후 8분기 연속 발동해 2007년 7~9월 이후 4분기 연속으로 농가 실질 부담액의 상승을 4%로 억제하는 추가적인 보전이 발동했다. 또 「이상보전」이 2007년 1~3월 이후 3분기 연속 및 2008년 4~6월에 발동했다.
- 2008년도 예산으로서 ① 이상보전 기금의 적립(국가부담분 60억엔, 민간 부담분과 합계 120억엔) ② 통상보전 기금의 재원 부족 시의 차입에 대한 이상보전

기금으로부터의 이자 조성을 조치했다.

- 또 제도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7~9월 이후에 대해서는 ① 특별적으로 이상보전의 발동 기준을 인하함(115% → 112.5%)과 동시에 ② 통상보전 기금의 재원 부족분(약 350억엔)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었다. 다만, ③ 통상보전에 있어서의 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4%로 억제하는 추가보전을 정지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배합사료 가격의 변동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면 관계상이 정도만 소개하고자 한다.

8. 마치며

일본의 육계산업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일본은 닭고기 자급률이 69% 정도로 그 나머지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 수입량 중 브라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의 경우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서는 AI 발생에 따른 수출제한이 무엇보다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출하체중에 있어서 일본은 2.5kg 정도이나 국내에선 1.4kg 정도로 사육체계가 크게 다른데도 기인할 수 있다.

닭고기 가공제품 또한 삼계탕위주의 품목 다양성 부재로,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과 시장개척에 따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육계산업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육계산업도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